

단기팀 안전수칙과 행동지침

KWMA

I. 현지에서 위기 상황

1. 개인소지품들의 누락, 분실 - 점검과 확인(개인물품 vs 팀 화물)
2. 금품, 물품, 귀중품, 사역용품 등의 절도나 절취 사건
3. 각종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 자동차, 오토바이, 선박, 비행기(개인적인 상해/ 팀 전체의 차량사고)
4. 안전사고의 발생: 개인과 그룹 전체
5. 예상치 못한 기상이변, 자연재해를 만나는 경우: 지진, 태풍, 해일, 홍수, 화산...
6. 팀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 위기사태가 증폭되는 경우
7. 문화나 풍속의 몰이해로 인해 현지인들을 자극하거나 충돌을 야기하는 경우 - 사전지식
8. 현지에서 법규위반, 시비, 패싸움, 폭력행위 등에 연루되어 구금, 구속되는 경우
9. 범죄의 대상으로 강도, 강탈, 상해, 성추행 등을 당하는 경우
10. 창의적 접근지역의 현지 공권력이나 비밀경찰 등에 의해 체포, 억류되는 경우
11. 현지의 정정불안으로 내전, 쿠데타, 폭동 등 치안부재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12. 분쟁지역이나 위험지역에서 반군이나 적대세력에 의한 납치, 인질상황의 발생
13. 현지의 우범자, 갱단 등의 우발적 급성 유괴, 납치가 되는 경우

II. 단기봉사 팀의 유의사항

1. 단기팀 명칭은 '단기봉사팀', '아웃리치팀', '탐사팀', '정탐팀' 등으로 호칭한다.
2. 현지 코디 선교사와 현장의 필요, 단기팀의 사역에 대하여 충분히 소통한다.
3. 팀원들이 사역활동에 대한 충분한 사전 이해 및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한다.
4. 팀 자체의 안전과 보안사항, 단원들의 건강 확보를 최우선시 해야 한다.
5. 현지 종교와 문화에 대한 존중과 겸손한 태도를 유지한다.
6. 선부른 돌출행동을 삼가하고, 봉사와 섬김으로 복음 증거에 동참한다.
7. 현장의 예측하기 어려운 위기상황에 대한 위기대처 능력을 갖는다.
8. 귀국 시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다.
9.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치도록 한다.

III. 단기봉사팀원의 개인 위기대처 3가지 원칙

1. 깨어 있으라! (Stay alert!)
2. 어려운 타깃이 될 것(예견할 수 없게 하라-타깃이 되지 않게)! (Be unpredictable!)
3. 잘 드러나지 않게 하라! (Keep a low profile!)

IV. 안전한 여행을 위한 점검표

1. 외교부 홈페이지(<http://www.0404.go.kr>)에서 해당 국가의 위기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했는가?
2. 전문성을 갖고 있는 교단 선교부 및 선교단체의 위기관리팀으로부터 교육과 훈련을 받았는가?
3. 출국 전 건강진단을 통해 여행 혹은 봉사활동에 적합한 몸 상태인지 여부를 확인했는가?
4. 해당 국가의 전문가(선*사)로부터 위기대처 요령에 대한 안내와 유의사항을 교육 받았는가?
5. 언제 어디서라도 사용 가능한 연락 장치는 확보했는가? 교회와 선교단체, 현지 선교사 등의 다중연락망은 구축했는가?

▣ 다중 연락망

*유료 국가별 접속번호 + 822-3210-0404

*무료 국가별 접속번호 + 800-2100-0404

▣ 영사콜센터

*무료자동연결 현지국제전화코드 + 800-2100-0404

*무료수동연결 국가별접속번호 + 0번 + 교환원 + 영사콜센터

*유료연결 현지국제전화코드 + 822-3210-0404

6. 위험지역으로 여행을 계획했다면, 정부와 각 선교회, 교단 선교부 등에 보고하였는가?
7. 현지 한국공관과 해당 선교부의 비상 연락망은 미리 확보해 두었는가?
(현지에서 사고 발생 시, 신속히 해외 한국공관이나 본국 파송기관에 연락하여 단 시간 내 사건에 대처하도록 한다)
8. 위험지역에 많은 인원이 단체로 출국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 계획 자체를 재고해 보라.

V. 여행중 유의사항

1. 대부분 도시에서 소매치기, 들치기 또는 폭력 강탈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니 신분증, 신용카드, 현금 등은 여러 곳에 분산하여 보관한다.
2. 여권은 지갑과 별도로 보관해서 여권과 지갑을 함께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3. 일부 국가 관광지에서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며 수면제 탄 음료수 등을 권하고 여행자가 잠든 사이 금품을 갈취한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라.
4. 현지 가이드가 있는 경우 그의 조언(권유)에 따라 단체 행동을 하고 무리한 산행, 물놀이 등을 삼가라
5. 기타 유의사항
 - (1) 경비 절약, 한국말 통용 등의 편의 때문에 잠금장치가 허술하고 외부에서의 접근하기 쉬운 곳으로 숙박지를 선정하지 말라
 - (2) 도보 여행시 동행자에게 행선지를 미리 통보하고, 길거리에서 함부로 남이 주는 음식을 먹지 말라
 - (3) 차량으로 여행시 모르는 사람을 태우지 말라.
 - (4) 길거리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찰이 도착하지 전까지 바로 차문을 열지 마라

[추천도서] 『단기봉사 팀 위기관리! 이렇게 대처하라』 (한국위기관리재단 편)

[부록] 안전 수칙과 행동지침

안전에 대한 책임 자체는 결코 다른 사람에게 위임되거나 의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각 나라와 지역별로 위험의 정도와 성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지 상황에 대한 이해를 위해 여러 각도에서 현지 실정에 맞는 위기관리와 대책을 강구하여 팀원 모두가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팀원 한 사람이 당하는 위기는 곧 팀 전체가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한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팀 전체가 움직일 수 없는 현실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에 대한 대비는 팀 전체가 함께 해야 한다. 그러나 일어나지도 않을 위기상황을 너무 부각시켜서 팀이 위축되고, 실제로 감당해야 할 일을 놓쳐서도 안 된다. 주님께서서는 제자들을 보내실 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고 하시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셨다.

1. 여행 중 유의 사항

(1) 여권 도난 또는 분실

- 중국, 동남아 국가에서 한국 여권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범죄 조직이 있다.
- 관광 안내원이나 숙박업소에 숙아서 여권을 맡겼다가 분실하는 사례가 있다.
- 여권을 분실했을 때는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에 즉시 신고하고, 여권을 재발급을 받는다.
- 여권 분실에 대비해서 여권사본, 사진2매(여권용)를 별도로 보관한다.

(2) 사기, 호객, 악질택시

- 한국에 관심이 있다고 접근해 가짜물건을 비싸게 팔거나 사기도박으로 유인하는 경우가 있다.
- 영어나 한국어를 구사하며 친절하게 말을 걸어오는 사람을 쉽게 믿어서는 안된다.
- 러시아, 중국, 동유럽에서 택시기사가 강도로 돌변하는 사례가 있다.

(3) 소매치기, 날치기, 강도

-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수시로 소지품을 체크하라.
- 오토바이나 차량을 이용한 날치기와 강도 피해에 주의하라.
- 터키, 지중해권, 유럽, 동남아 국가의 관광지에서 낯선 외국인이 다가와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며 수면제 탄 음료수를 권하고 금품을 갈취한다. 중국, 유럽에서 침대열차를 이용할 때 현지인이 음료수를 권할 때 사양하라.

2. 피해 발생 시 행동요령

(1) 질병

- 설사와 구토: 식중독, 오염된 물, 상한음식 등으로 일어난다.
- 두통과 열: 머리를 숙여 턱을 가슴에 붙이지 못하고(경부강직증), 심한 두통, 고열, 구토 등이 동반되면 뇌막염 일 가능성이 있다. 경부강직증이 없고, 코 양쪽 옆의 광대뼈 부위에 통증이나 귀 아픔이 없으면 상비약 복용, 그러나 열이 38.3도 이상으로 2일 이상 지속되면 병원에 가는 것이 좋다.
- 복통: 소화가 안 되거나 설사가 있는 경우에 복통이 동반된다. 복통이 아주 심하고, 배를 누를 때 압통이 매우 심하거나, 눌렀다가 손을 땄 때 통증이 심하면 복막염의 가능성이 있다.

(2) 마약 운반, 소지

- 마약을 살 빼는 약, 고급차 등으로 사칭하여 팔기도 하고, 선심을 쓰면서 휴대가방이나 서류봉투 등의 운반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공항에서 승객으로 가장하여 긴급한 용무로 탑승이 어렵다며 국내 가족이나 친구

에게 줄 선물이라며 전달해 달라고 요청한다.

- 공안에 체포, 구금될 경우 재외공관에 연락하고 영사와의 면담을 요청하여 보호받을 방법을 강구한다. 조사과정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나 문서에 함부로 동의(서명)하지 말고 통역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라.

(3) 강도, 폭행을 당한 경우

- 공포에 질리지 말고 침착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서 생존하는 일이지 얼마나 열심히 반항하고 싸웠는가가 아니다.
- 사건 후에 피해자의 부주의라든가 과장상의 선택을 판단하거나 비난할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 생존을 기뻐하며 격려해주는 일 이외의 다른 언급을 말라.
- 성폭행에 주의하라: 한적한 곳에 가지 말라. 한국여성은 현지인들에게 예쁘고 어리게 보인다.

3. 위기상황 시 행동요령

(1) 감시받는 경우

- 감시자 누구인가? 경찰 / 테러범 / 범법자
- 감시자가 경찰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 감시는 범인들이 범행의 제일 처음단계에 사용하는 전략이다. 그러나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해서 곧 공격이 뒤따르는 것은 아니다.
- 감시를 당하고 있는지 여부를 잘 판단하는 방법
 - ① 감시는 보통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는 젊은 사람이 한다.
 - ② 감시는 보통 대상자가 숙소를 떠나서 다시 숙소로 돌아올 때까지 계속되며 대상자가 숙소를 떠날 때 차를 이용하거나 도보로 하느냐에 따라 범인도 같은 방법을 쓴다. 이런 경우 대상자가 일부러 두세 번만 급작 행동을 한다면 감시 여부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2) 취조를 당하는 경우: 법적으로 복음전파가 불법으로 지정된 나라에서는 현지 경찰에 의해서도 취조를 당할 수 있다. 또한 테러, 무장단체에 의해서도 취조를 당할 수 있다.

- 통상 사용하는 수법들을 보면,
 - ① TV나 영화에서 보듯이 선인과 악인이 교대로 협박과 회유를 번갈아 가며 취조하는 것이고,
 - ② 동정심이나 우정을 가장해 자기도 모르게 발설하도록 유인하는 것이며,
 - ③ 인질이 여러 가지 죄들을 범한 것으로 몰아붙여 그 중에서 몇 가지 경미하지만 범인들에게는 관심이 큰 죄들에 대해 자백을 받아내는 방법이다.
- 취조를 당할 때 알아두어야 할 원리들이 있는데,
 - ① 인질이 누구이든 간에 자백을 강요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발설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스스로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해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거나 공중에 이미 알려진 것들을 숨김으로써 고문을 당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 ② 안전하게 답변할 수 있는 질문들을 골라서 그것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비밀을 지켜야 하는 사항에 대한 질문은 질문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대응함으로써 질문의 핵심을 회피할 수도 있다.

(3) 현지 공관에 체포 또는 구금

- 일단은 현지 사법당국의 절차를 따른다.
- 본인이 모르는 외국어로 된 문서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 할 때는 함부로 서명하지 말라.
- 현지 사법 당국에 통역이나 영사와의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 체포, 구금 당시 부당한 대우, 가혹행위, 반인권적인 사항이 있었을 경우 영사와 면담 시 관련사실을 알려 시정을 요구한다.
- 변호사비, 보석, 소송비를 지불해야 할 경우, 신속해외송금제도를 활용한다.

(4) 인질, 피랍

- 납치와 관련된 오해 중의 하나는 납치되면 살해될 위험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실 납치된 자들이 납치범에 의해 살해되는 경우는 드물다. 납치된 경우 먼저 납치범들이 죽이려고 하였다면 인질로 납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80%는 생존)
- 인질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생사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납치된 순간이나 감금기간 중 감정을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중요하다. 납치 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최초의 몇 분간과 구조작전 때이다. 이때 저항과 격렬한 감정을 보이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 납치는 기본적으로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 ① 포획(Capture)의 단계: 납치되면 일단 순응하라.
 - ② 억류(Detention)의 단계: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라.
 - ③ 구조(Rescue) 또는 석방(Release) 단계: 끝까지 신중하라. 인질들이 석방되었다고 해서 상황이 완전히 종료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기간의 생존률이 가장 낮기 때문에 끝까지 신중히 대처해야 하며,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된다.